

조경유지관리의 업무 범위 및 기준 설정 방안*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nTi(Landscaping)

I. 서론

각 분야에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조경분야도 조경유지관리 개념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개념화할 필요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조경관리로 통칭하며 주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현장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여러 여건의 변화로 조건과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경유지관리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별해 내고, 관련 업무 또는 업역의 설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관련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규정한 조경유지관리의 개념(안명준, 유주은, 2019)을 바탕으로 이를 조경공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조경유지관리 업무의 설정

전문건설의 한 분야인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은 세계적으로 전문성(professionalism)을 인정받고 있으며, 어바니즘,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등 관련 전문업과 대등한 위상에서 “인간을 위한 공간(옥외공간), 자연을 위한 환경,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위한 경관 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전문업종이다. 단순히 나무를 심고 환경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발전(SDGs)을 지원하고 실현하는, 유일하게 생물을 공사에서 다루는 전문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및 자연 재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및 생활문제,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 대도시 집중화로 인한 녹색인프라 문제, 노령화 및 노후 시설 증가로 인한 노후인프라 문제와 도시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전문분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식물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조경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업’과 ‘기존 조성된 조경공간의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사업’으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적합한 업무 설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원칙으로 하여 전문공사로서의 조경업의 업무 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조경유지관리업 신설의 방향

조경설계기준과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개선 과정을 보면 꾸준히 조경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현장 연착륙을 고려한 조경유지관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

- 1) 조경유지관리공사는 조경공간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목표로 식물의 생육과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업의 하나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장비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경공간의 특성상 용역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2) 조경은 그 정의상 통일된 결과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적 특성이 있어 조경식재, 조경시설, 조경구조물 등 인접 분야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조경이라는 용어를 부기하여 왔으나, 조경식재 등 몇몇 용어는 일반화되어 업무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조경 전문공사업 체계가 필요하다.

Table 1. 조경 전문건설업종 개편의 방안

조경 전문건설업종	주요 업무내용	조경 전문공사의 예시
식재·생태환경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그와 관련한 기반 및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피복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뿌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식재기반조성 관련 공사와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생태못 및 인공습지, 훼손지복원, 비탈면 녹화 및 조경, 생태숲, 임계녹화 등의 생태환경공사 등
조경시설 공사업	조경공간의 휴게, 안내, 놀이, 운동, 이동동선, 경관형성, 소생태계, 수공간, 옹벽, 울타리 등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조경구조물, 조경포장, 생태통로 등을 목적에 따라 조성하는 공사	조경구조물 및 옥외시설물, 휴게시설, 안내시설,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및 인조암, 조경동선 및 관리시설, 경관조명시설, 배수 및 관수 시설 등의 조경시설공사와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 및 주차장 등의 조경포장공사, 생태통로, 폐도복원 등 기타 조경시설 공사 등
조경유지관리 공사업	조경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식재 관리 및 시설물 관련 보수, 개조 등의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전지, 전정, 방제 등의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공사 등

*: 본 연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의 지원으로 수행됨.

3) 조경공사의 세부 공종에서도 기술적 고유성이 각기 다른 식재, 시설, 유지관리의 3개 업종으로의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조경공간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문공사의 기틀로 새롭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에 낡고 현장에 부적합한 업무내용 예시를 현황에 맞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IV. 조경유지관리 제도화 방안

1. 조경공간(조경 목적물)의 명확화

법률적으로 조경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조경진흥법 제2조).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조경의 목적물 또는 대상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조경설계기준에서 상시로 사용되는 조경공간이라는 용어도 개념 정의가 되지 않고 있어,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대상을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시급히 조경 행위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일부 타 분야와 통합하여야 할 대상의 경우를 포함하여 유연한 규정 및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때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대상이 규정될 수 있으며, 세부 활동 또는 업무의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

2. 조성후 품질관리, 성능기준 도입

조경과 관련한 유지관리 업무와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련된 기준 또는 평가의 방안이 미흡하다. 기존 조경기준이나 지방서는 신규 조경공사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재공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기존 수목 규격 기준만 보더라도 신규공사에 맞춘 규격기준이어서 식재 후 수형기준이나 규격기준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료나 공법의 명확한 규정보다는 목적하는바 성능을 중심으로 하는 시공과 관리가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어 조경유지관리에도 이를 고려한 품질관리, 성능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식물을 다룬다는 어려움 때문에 근대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진하였으나, 21세기 이후 관련된 연구(일례로 LATIS)도 활발하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조경유지관리업의 신설 및 제도화

조경공사는 종합 및 전문 공사업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조경공간 조성에 특화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축, 토목뿐만 아니라, 조경 또한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명확한 규정이나 업역 설정이 미진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경공간은 일단의 구조물, 시설물과는 달리 식재로 인한 변화가 상시 이루어지므로 보다 각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조경공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경유지관리업의 신설을 건설업종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그 필요성에 따라 일반 용역업이 아닌 건설업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며, 식재와 시설, 구조물, 포장 등이 통합공간을 이루는 조경공간의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업역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예방관리를 고려한 통합적 조경공사 체계 정비

재해 및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조경이나 공원녹지, 도시녹화 등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하나로서 도시의 녹색인프라로 이해되고 있다. 생활과 밀접하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조경공간은 예지보전 또는 예방관리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고, 현장 발주, 공사 과정을 통해 보완되며, 조성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 및 리질리언스가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활공간이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예방관리의 관점이 시계열적으로 사전, 사후 모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BIM, IPD와 같은 방법론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조경관리는 조경유지관리와는 다른 위상과 체계를 갖는다. 조경유지관리는 조경공간에 특화된 예방관리와 품질관리, 성능기준 중심의 현장 중심의 개념이다. 기존 조경공사의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한 환경과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신규 조경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규 조경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조경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조경공간, 복합적 조경공간 등 조경공간의 일반적 상황을 고려한 유지관리의 개념과 체계로의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유지관리와 조경유지관리업에 초점을 두고 관련 고려 사항을 검토하는데 집중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체계와 기준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신규 영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안명준(2020)조경분야 생산구조 개편안 대응 방안 연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회.
2. 안명준(2020) 조경공간 및 조경공사 유지관리 기준 수립 연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회.
3. 안명준, 유주은(2019) 조경유지관리의 개념 설정 및 제도화 방안, 한국조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4. 한국건축시공학회(2019) 전문건설업종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연구.
5. 한국조경학회(2015) 신 조경관리학, 문운당.